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치위생학과 학술 소모임 예소사(Yesosa)가 6.9제 행사를 진행하였다. 6월 9일은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는 시기인 6세의 6을, 어금니의 전문 용어인 구치에서 9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구강보건의 날’로 제정되었다.

본 행사는 구강보건과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여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는 3가지 퀴즈를 통해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퀴즈는 ‘6.9은 무슨 날인가?’, ‘치약에 물을 묻히고 양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 ‘세계 치과 연맹에서는 불소가 1000-1500ppm 정도 함유된 치약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가?’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에게 정답을 외칠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는 당뇨병의 개선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 껌과 캔디를 수여하고 퀴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 해당 기념일의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였다.

(계속)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예소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퀴즈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공되는 상품을 통해 다시 한번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23학번 송윤서 학우는 ‘6.9제 행사를 진행하며 불소증, 자일리톨의 원리 등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치위생학과의 지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남겼다. 23학번 한예은 학우 또한 ‘자일리톨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일리톨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들을 보면서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예소사 편집부 1학년 박희수



연세대학교 치위생학회 YESOSA
예쁜 미소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